# 태고종, 최고 원로자문기구 승정원 '복원'

**8월 1일 AW컨벤션센터서 간담회**
**원장에 금용 스님 만장일치 추대**
**부원장엔 보혜 · 혜운 스님 추대**
**종정 운경 스님 "경륜으로 조언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2층 아리아스홀에서 첫 승정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총무원장 상진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종정 예하 운경 스님, 승정원 부원장 보혜 스님, 혜운 스님.

태고종 승정원 원장에 금용 스님이, 부원장에는 보혜 스님과 혜운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2층 아리아스홀에서 첫 승정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과 지난 7월 10일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 23명의 승정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3명의 승정에게 추대패를 일일이 전달하며 승정 취임을 축하했다.

태고종 승정원은 원로자문기구로 그동안에는 종단 내홍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해 활동이 전무했다. 이번 승정원 구성으로 태고종은 원로스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종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종정 운경 스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종단의 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해(知解)와 덕행(德行)이 출중한 스님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니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간 유명무실했던 승정원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마음을 내 다시 만들고 종단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대해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단과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보이고 지침을 설정해 나아갈 길로 이끌어 주는 게 주어진 책무이자 역할"이라면서 "종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종단의 사표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여기 계신 큰스님들이 종단 운영을 하실 때 소납이 학교 행정을 맡아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큰스님들을 모시고 종단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상진 스님은 또 "종단의 앞날을 위해 후원하고 질책하면서 지도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며 승정으로 추대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원장단을 꾸리자는 승정 혜운 스님의 제안에 참여 대중은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원장에 금용 스님을, 수석 부원장에 보혜 스님, 차석 부원장에 혜운 스님을 천거했고 승정모임은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승정원장에 추대된 금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뽑혀 송구하다"며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승정원이 애종심을 갖고 종단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문역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승정원은 이른 시일 승정회의를 소집해 종단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한 종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식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승정원장 금용 스님은 1953년 선암사에서 축발한 이후 제11대 중앙종회의원, 불교전문강원장,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및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전남 장흥 장원사 주지로 있다.

수석 부원장 보혜 스님은 1974년 류공 스님을 은사로 금오사에서 축발한 이후 법규위원,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초심원장, 총무원 행정부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5대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양평 용천사 주지로 있다. 차석 부원장 혜운 스님은 1973년 동진 스님을 은사로 관음사에서 축발한 이후 서울북부교구 지방종회의장과 제12~13대 중앙종회의원,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 노원구 송암사 주지로 있다.

# 진우 스님 "태아 영가, 천도재로 佛法 전해야"

**8월 4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서**
**"천도재로 삼독심 없애 평안"**



"태아 영가, 수자령이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달래줘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게 천도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8월 4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섰다. 이날 법회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백중맞이 태중아기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재'가 함께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초하루법회와 특별 천도재에 참석하기 위해 온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태아 영가와 천도재의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먼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사방 십리나 되는 큰 바위를 1~3년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옷으로 닳아 없앨 정도의 시간을 '반석겁'이라고 한다. 그 오랜 기간 중 단 한번의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아 영가들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인연을 기다려 왔지만, 자의든 타의든 그 길이 막혀 버린 것"이라며 "그에 대한 원한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영가들의 아픔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태아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가들이 천도 염불을 통해 스스로 위안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모두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천도재"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스님은 천도재가 곧 마음을 닦는 육바라밀 행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천도재 가운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육바라밀의 정진"이라며 "모두 항상 육바라밀 행을 닦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없애 평안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 "사찰림 보호에 조계종·환경부 함께"

**진우 스님, 환경부 장관에 '사찰림 역할'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 보호에 종단과 환경부가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림이고 그 가운데 사찰림은 생태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며 "국립공원 대부분도 사찰 경내에 속하므로 국토 보호를 위해 앞으로 종단과 환경부의 협력이 원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스님은 "신불산 인근에 위치한 통도사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효용을 알 수 없다"며 "환경부에서 지역과 사찰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안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라며 "환경보호, 안전성, 경제성 등 다방면에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 조계종 선명상 콘텐츠 '자비명상' 공개

**이웃 사랑 · 축원 내용 담겨**

조계종이 국민정신 건강 증진과 마음 치유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 가운데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9월 28일 국제선명상대회를 앞두고 제작한 '자비명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 '자비명상'은 지난 5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청소년을 위한 행복명상', 7월 '소리명상'에 이어 네 번째다. 총 5분 13초 길이로, 내 안의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힘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용서, 축원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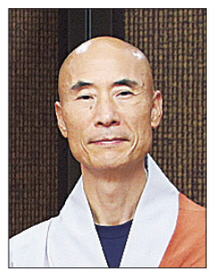
미래본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영상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꾸준히 명상콘텐츠를 제작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비명상'은 조계종홍보국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임은호 기자

# 고운사 주지후보에 등운 스님

**8월 8일 산중총회서 확정**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차기 주지후보에 현 주지 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1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8일 고운사 화엄템플문화관에서 고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등운 스님의 당선을 투표없이 확정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를 지냈다. 2020년부터 고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됩니다'
'특별한 할인가격, 더더 할인가격'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대 8일초 20개(한박스) 85,000원

파라핀 1.8리터 12병(한박스)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